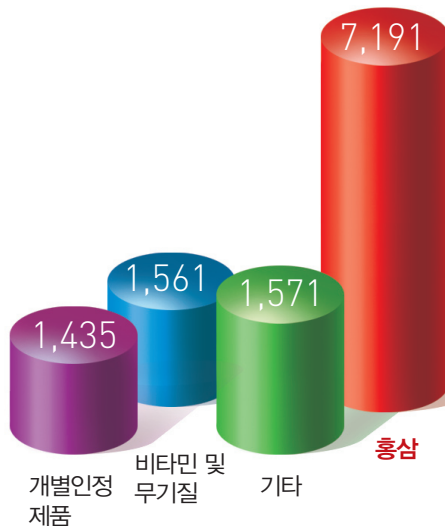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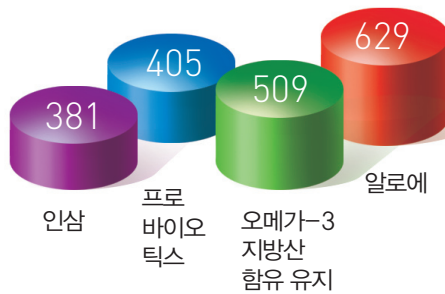


*
2011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단위 : 억 원)



건강기능식품 파란불

홍삼사랑 여전, 간 건강 뒀다!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감마리놀렌산, 비타민 및 무기질, 오메가-3 등의 기능성 제품이 많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기능식품 총 생산액은 1조 3천 682억 원으로 2010년 대비 28.2%나 증가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 추세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자기 건강관리(Self-Health Care)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대부분 성인이 애용하는 홍삼제품 생산액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52.6%(7천190억 원)를 차지하며 1위를 달성해 2004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30%, 2010년 54.5%를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소비자 요구에 따른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성장 요인은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 등으로 간 건강에 대한 소비 수요 증대, 일본 방사능 유출·환경오염·자외선 등으로 인한 면역기능이나 피부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인 1인 소비량 338잔

대한민국, 잠 못 드는 커피공화국

커피전문점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국내 커피 수입액이 7억 달러로 5년 새 3배나 늘었다. 수입물량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 1인이 338잔을 소비해 5년 전보다 131잔을 더 마셨다는 통계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커피 수입 물량은 1.6배, 금액 기준으로 8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은 2001년 7만 9천526톤에서 2011년 12만 3천29톤으로 늘고, 수입액도 2001년 8천만 달러에서 2011년 6억 6천800만 달러로 꺾충 뛰었다.

국내 소비자들이 마시는 커피는 총 83개국에서 수입되며 베트남(38%), 브라질(15%), 콜롬비아(11%)가 전체 물량의 64%를 차지한다.

원재료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 커피의 주 소비층인 젊은 층이 고급 원두 커피를 선호하면서 원두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되는 생두는 감소 추세다. 최근 유명 영화배우 모델이 등장해 시선을 모았던 커피 제조기용 캡슐커피 수요 증가로 커피 조제품 수입 비중도 2배나 늘어난 상황. 식약처는 건강을 위해 하루에 에스프레소 4잔 분량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권고했다.



2004~2011년
국내 커피
수입량

(단위 : %)

